

평창군 4개 공공기관, 마약·사이버도박 예방 캠페인...200명 청소년 참여

✎ 이진화 기자 | ⓒ 승인 2026.09.22 14:45

마약 간이 검출 스티커 시연 등 체험형 예방활동 실시
사이버도박과 학교폭력 등 다양한 범죄 위험성 알림
공공기관 합동 채용 리크루팅으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평창=국제뉴스) 이진화 기자 = 평창고등학교 등곳길에서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평창경찰서, 평창군 공공기관 ESG 경영 협의체 참여기관이 함께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2일 오전 평창고등학교 후문에서 평창경찰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평창관광문화재단, 평창유산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사이버도박, 학교폭력 등 범죄와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평창고등학교 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캠페인 현장에서는 마약 간이 검출 스티커를 활용한 시연과 배부가 이루어졌으며, 약물범죄 위험 상황에서의 자기보호 행동요령도 안내했다.

평창경찰서는 마약류 범죄 예방을 주제로 OX퀴즈를 실시하고, 정답과 예방수칙을 담은 영상을 평창고등학교와 평창경찰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사이버도박과 도박의 위험성, 기초질서, 교통안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또한 캠페인과 연계해 평창군 공공기관 ESG 경영 협의체 합동 채용 리크루팅이 진행돼, 참여기관별 주요 업무와 직무, 채용정보를 안내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의 범죄 및 유해환경 위험성 인식과 자기보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평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NO Weak Challenge'후속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공단은 9월 한 달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와 에코랜드 등 운영시설 전광판과 TV를 통해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및 범죄 예방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 캠페인과 시설 홍보를 연계해 범죄예방 인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화 기자 musicjin123@naver.com